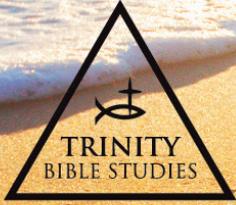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2022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가을학기 | 시편 I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O LORD, Teach me your Paths

2022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개강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O LORD, Teach me your Paths) - 시 25:4

2022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개강한다. 9월 6일 ~ 11월 22일 까지 12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광림교회 본당과 지교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가을학기 과목은 시편이며 주제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O LORD, Teach me your Paths)(시편 25:4)이다.

시편은 복음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경이라 할 수 있으며, 시편의 주제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고백’이라 할 수 있다.

시편 150편 중 다윗이 73편을 작성하였으며, 그 밖의 글들이 작성된 시기는 모세에서부터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0년에 걸쳐 기록되었다.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은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성경을 조명하고 ‘사실(Fact), 의미(Meaning), 적용(Application)’이라는 세 단계의 학습 과정

을 통해 삶에 적용하는 성서연구과정이다. 미국 프랭크 와튼 박사로부터 시작되어 광림교회 한국목회연구원을 통해 소개되었다.

광림교회에서는 지난 1983년 1월 구약총론을 시작으로 1999년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전체를 마쳤다. 이어 2000년 봄학기부터 두 번째 성경연구가 시작하여 2015년 봄학기 요한계시록까지 15년 6개월에 걸쳐 성경의 전 과정을 진행하였다.

트리니티 성경공부는 전문적인 신학적 지식이나 성서에 관한 해석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성경을 함께 읽는 가운데서 은혜를 깨닫고,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매 강의마다 성경암송 시간이 있어 도전하게 되면 기념사진과 선물도 받는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광림교회의 두가지 큰 영적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호렙산기도회와

트리니티 성경공부이다. 광림교회 성도들에게 성경공부는 필수이며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 되고 나에게 힘을 준다.

이러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새로운 능력과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20여명의 트리니티 봉사자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림교회의 자랑으로 이어져 온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돕고 있다. 이들은 강의가 시작되기 전 먼저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고, 은혜로운 강의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강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한다. 수강생들로부터 과제를 제출받은 뒤에는 회차별로 분류하고 채점을 하게 되는데, 오답을 쓴 경우 봉사자들이 새로 정답을 표기해 준다.

12년째 트리니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무 장로는 “매번 열심히 준비하여 성도들이 이해가 잘 되도록 세밀하게 강의노트를 만들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 담임목사를 통해 은혜를 받는다. 수강생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나 그리고 나이가 많고 몸이 불편함에도 교회에 나와 진지하게 강의도 듣고 꼼꼼하게 메모하고 정성껏 과제물도 제출하는 것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가을학기 트리니티는 통신과정 없이 일반과정으로만 진행되며, 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와 유튜브 광림교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동참할 수 있다.

접수는 8월28일 주일부터 9월 13일(화)까지 각 교구 전도사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이득섭 기자

참된 안식의 진정한 의미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마가복음 3장 5절)

본문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참된 회개의 모습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축제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4절)고 물으시며, 참된 안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참된 안식을 경험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안식을 누렸기 때문에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의 태도는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고,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참된 안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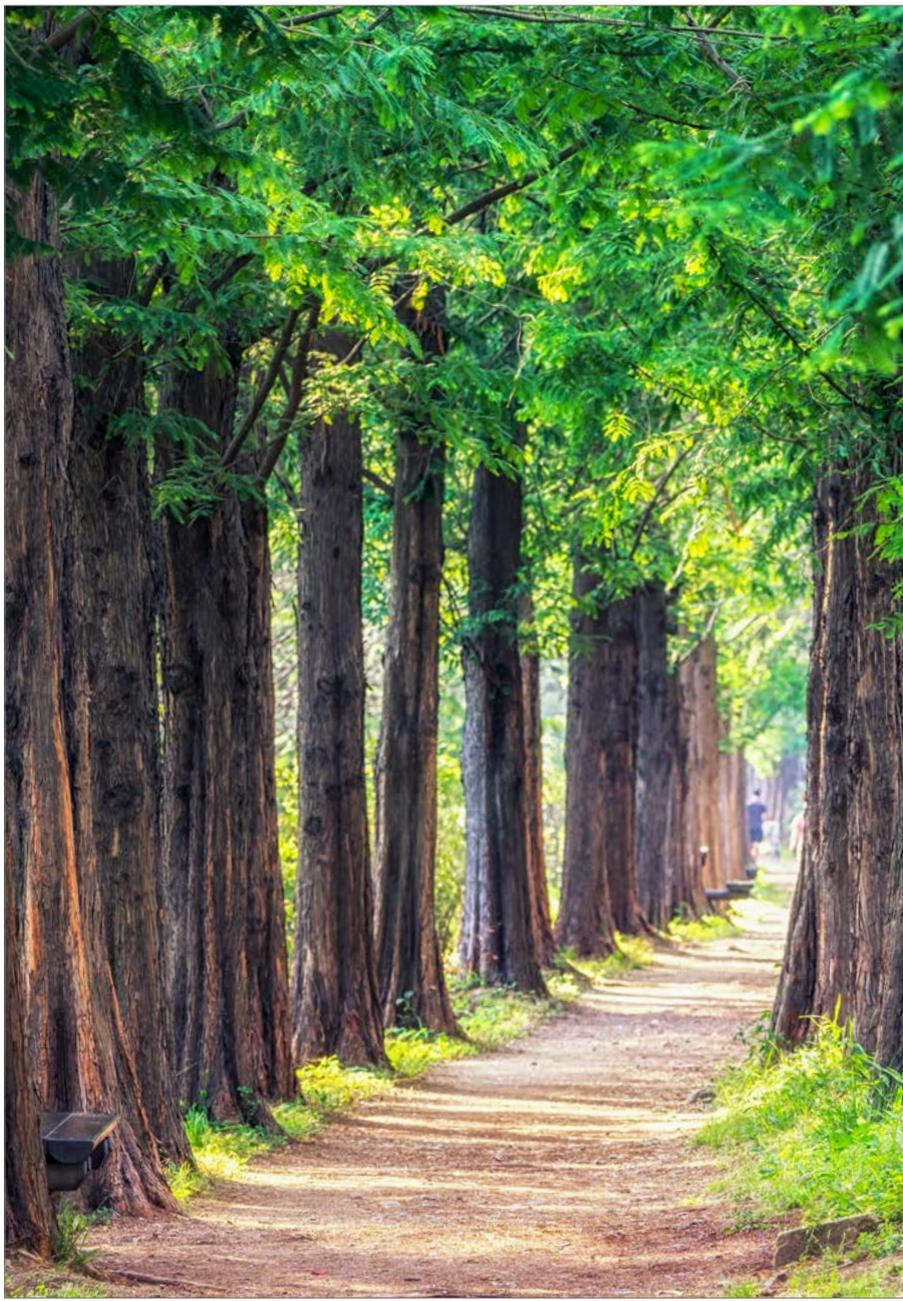
첫째, 참된 안식을 얻을 때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삶의 최종 목표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행복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안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이야말로 참된 행복이었습니다. 오랜 방랑의 역사, 광야의 인생을 살았던 그들에게 약속의 땅은 안식의 땅이었고, 또 그곳에 묻힐 때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7일에 한 번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번의 쉼을 통해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한 날도 사람을 위한 날도 아닌 오직 자신들의 생각과 권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날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지키기 어려운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쉬고 있었을지라도 나쁜 생각을 하는 마음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찾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대해 율법에 매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치유하고, 사랑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신만 의롭게 보이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진정한 행복과 평안함, 더 나아가 안식을 느끼는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가복음 3장 1~6절

1.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2.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3.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 서라 하시고 4.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5.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 노하시므로 그들이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6.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삼키며 봉사할 때입니다. 섬김과 헌신의 삶 속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참된 안식을 얻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마가는 회당의 여러 사람들 중 특별히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지목하여 기록했을까요? 그 사람은 우연히 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그 곳에 있었던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거나 후천적으로 질병을 얻게 된 경우,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애인들이나 병자들이 회당에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관이나 강가에서 또는 마을에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이 유도 이들이 회당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

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손 마른 사람, 즉 손에 장애가 있던 사람이 회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시대 상황을 비춰볼 때 아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손 마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회당에 앉혀놓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뭔가 흠을 잡기 위해 덫을 놓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이삭 자르는 것을 허용하셨던 예수님께서서는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예상대로 예수님은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당에 나오 앉아 있는 한 영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손 마른 사람을 이용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손을 치유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주님께 나오는 자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

로 우리는 손이 마른 병자처럼 마음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도 주님께 내어놓으면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 육체의 불편함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까지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참된 안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참된 안식을 얻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 말하던 병자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의 완악하고 무자비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통해 안식의 새로운 개념을 주십니다. 손 마른 자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도구로 회당에 오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바리새인들의 말에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안식일이기에 아무도 일하지 않던 날은 고침 받은 병자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움직인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경험한 후 안식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움직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안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른 손이 회복된 사람은 무엇을 꿈꿨을까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각나며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삶의 결말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과의 만남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삶의 매 순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안식을 통해 존재 자체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20년 만에 열린 KMC 선교국 & UMC GBGM(세계선교부)

KMC - UMC 실제적인 선교전략회의로 협력



2022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있는 미연합감리교회(UMC) 세계선교부(GBGM)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KMC)와 미연합감리교회의 선교전략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는 2001년 이후 20년 만에 양 교단의 선교국이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모인 회의였다. KMC에서는 이철 감독회장과 선교국 위원장인 김정석 감독, 본부 선교국의 실무 담당자, 광림교회 선교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UMC에서는 토마스 비크톤(Thomas Bickerton) 감독회장, 정희수 GBGM 이사장, GBGM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토마스 비크톤 감독회장은 양 교단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며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위해 일할 때 성령께서 하나로 모으신다”라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이철 감독회장은 “비록 문화와 사고방식은 다르지만, 화합과 일치로

하나 되어 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역사신학자인 데이비드 W. 스콧(David W. Scott) 박사의 “UMC와 KMC의 선교 역사와 관계”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KMC 선교국 전문위원인 황병배 박사의 “아시아에서의 KMC 선교에 대한 성찰과 전망”이라는 발제가 있는 후, 실제적인 선교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KMC 선교국 오일영 총무와 GBGM 페르난데스(Roland Fernandes) 총무의 각 교단의 선교 현황 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김정석 감독의 진행으로 남수현 목사의 베트남 감리교단 등록에 대한 진행상황, 권순정 목사의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선교 보고가 이어졌다.

다음날에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제를 다뤘는데, 김종호 목사(후러싱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미주 한인 교회와 미연합감리교회의 평화운동”에 대해서, 신범식 장로(광림교회, 서

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한반도에서의 평화 이슈”에 대해 발제했다.

회의를 마치며 정희수 감독은 “UMC와 KMC가 함께 협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정석 감독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공통적인 도전, 즉 종교적 믿음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 감소, 양극화와 그로 인한 갈등, 그리고 평화의 문제에 대해 KMC와 UMC가 협력의 역사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20년 만에 열린 이 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다시 모일 예정이며, 양 교단은 이번 모임을 통해 서로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며 더욱 굳건한 파트너십을 맺는 계기로 삼았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포토 뉴스



전교인 여름수련회
8월 12일~14일까지 '생수의 강에서 심령을 새롭게'라는 주제로 열렸다



2022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8월 28일~9월 13일까지 각 교구전도사에게 접수



광림도서관
사회봉사관 5층 도서관이 운영중이다

서울남연회, 호우 피해 교회에 위로와 후원 전해



지난 8일부터 내렸던 기록적인 폭우의 피해가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집중되었다. 저지대의 침수로 많은 주택과 차량이 파손되었고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저지대와 지하에 위치한 교회들은 본당과 부대시설의 침수피해가 심각한 경우가 많았다. 집기와 비품, 전자제품과 음향장비, 성경책들이 침수되어 당장 주일예배를 걱정하게 되었다.



침수로 인한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남연회 교회는 동작지방회 새론교회(김한권 목사), 새에루살렘교회(유하선 목사), 구로지방회의 예사랑교회(김종로 목사), 양천지방회의 살림교회(임석일 목사), 관악서지방회의 참빛교회(지석조 목사), 축복교회(곽정문 목사) 등이다.

축복교회 곽정문 목사는 “교회가 완전히 침수되어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

시설과 집기들이 망가져서 예배를 거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남연회 김정석 감독은 지난 11일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강남지방의 침수피해를 입은 교회들을 방문해 피해현장을 둘러보며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했다.

서울남연회는 감리사를 통해 수해를 입은 교회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빠른 시일내에 복구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연회에서 2,500만원, 광림교회에서 1,000만원,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장로회에서 각각 500만원씩 후원해 마중물이 되었다.

폭우 속에서 침수되고 있는 교회를 지키려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주변 교회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앞으로 신속한 피해복구작업을 위해 광림교회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을 바라고 있다.

이정순 기자

담임목사 동정



- 8/15~20 UMC GBGM & KMC 선교국 선교 전략 회의(Mission Board Consultation)
- 8/21 안산시기독교연합회 복음화성회
- 8/23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학술대회 및 기념대회 선포식
- 8/24 수요치유의신학
- 8/25 총회실행부위원회
- 8/26 하반기서울남연회강학금 수여예배
- 8/27 서울남연회남선교회 평신도수련회 개회예배
- 8/28 성경학교 보고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스데반 연합 가족모임>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예배 공동체



1선교구



4선교구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믿음의 젊은 가정을 세우고 광림교회 스테반 선교회 부흥을 위한 연합 모임이 7월부터 10월 까지 10개 선교구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17일(주일)에는 1선교구(1, 2, 3교구)가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실에 모여 스테반 연합 선교회의 첫 시작을 알렸다.

8월 21일(주일)에는 4선교구(10, 11, 12교구) 스테반 연합 선교회가 3부 예배 후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아이들과 스테반 회원 20가정, 남선교회 본부 임원들을 합쳐 약 80여명이 참석해 세미나실을 가득 메웠다. 1부 예배에서 정용식 목사는 ‘신앙 세대의 확장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100살이라는 나이차가 났지만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한

마음으로 순종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도 경험했다. 4선교구도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 그리고 아이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예배 공동체로 힘써 모이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자. 또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배려하는 믿음을 가진 선교구로 연합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남선교회 비전과 사업 계획을 소개하면서 박기연 장로(남선교회총연합회 회장)는 “2017년부터 진행된 선교구별 스테반 연합 모임이 잠시 코로나로 주춤한 적도 있지만 올해 다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스테반 가족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고 부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스테반 가족 소개, 마술쇼, 경품 추첨, 애찬을 나누며 다채롭고 은혜로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스테반 선교회는 40세부터 52세까지 남성 성도들이 구원받은 기쁨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모인 남선교회 총연합회 조직으로 광림교회에서 허리 역할을 맡아 교회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10개 선교구 안에 39개 스테반 선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약 35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매월 1차례씩 선교회 모임과 예배를 드리고 회비를 모아 어렵고 힘든 곳에 후원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꾸준히 행하고 있다. 10월 마지막 주일 저녁 찬양예배는 스테반 가족 찬양단 주관으로 드려지며, 12월에는 광림 스테반 가족들을 위한 천국잔치인 송년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다.

유병권 기자

1~10선교구 스테반 연합 선교회 일정 및 장소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선교구 : 9월 18일(주일) 12시 30분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 3실 • 9선교구 : 9월 18일(주일) 12시 30분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 2실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선교구 : 10월 9일(주일) 12시 30분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 3실 • 6선교구 : 10월 16일(주일) 12시 30분 실로암 • 10선교구 : 10월 16일(주일) 12시 30분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 3실 • 2선교구 : 10월 23일(주일) 12시 30분 실로암 • 3선교구 : 10월 23일(주일) 12시 30분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 3실 • 7선교구 : 10월 23일(주일) 12시 30분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 2실

6선교구

수해 당한 선교구 가정들에 위로 심방



지난 8일부터 내린 비로 많은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내린 비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6선교구가 바로 대치동과 개포동 일대이기에 비가 내린 후 바로 지구장과 속장들께 안부를 전하고 전도사들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의 비 피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성도님들 가정에 많은 피해는 없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은마아파트와 대치동 일대가 전부 잠겼는줄 알았는데 지대가 낮은 대치역 주변과 은마아파트 상가 지하가 잠겼지만 그래도 빨리 복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구 안에 17교구 구룡마을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구장과 함께 일정을 내어 구룡마을의 비 피해 현장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개인적 차원의 복구는 어렵고 구청에서 나와 복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구청과 서울시의 도움으로 호텔에 임시로 거처를 삼고 낮에는 복구 현장에 나오셔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룡마을에 오랫동안 계시는 17교구 김충식 집사는 “내가 여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런 비는 처음 본다”고 하였습니다. 대모산 근처에 개천이 많은데 그 개천들이 마을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워낙 비도 많이 왔지만 하수구

가 막혀 피해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룡마을에서 건강원을 운영하시는 17교구 조영희 집사는 “집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 있는 것만도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며 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떠올렸습니다. 또한 17교구 강금순성도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해요”라며 복구가 빨리 진행되기를 소망하고 계셨습니다. 17교구 교구장 양기천 권사, 오윤미 권사와 이영화 전도사가 함께 수해현장을 돌아보며 참담한 수해현장에 많이 안타깝고 도움이 못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막상 피해 현장을 가보니 할 수 있는 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부와 위로를 전하며 경조회에서 준비한 금일봉을 교구장을 통해 전달하였고 작지만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고 속히 복구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구룡마을을 그렇게 다 돌아보고 돌아오던 길

에 문득 한 권사님이 생각나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달려가 권사님을 만났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비 피해를 보신 것입니다. 뒷집이 무너지고 그 축대가 큰 비로 지반이 약해져 밀고 들어올까봐 걱정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방 안까지 빗물이 들어와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께서 오호러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 이야기가 가득했고 상황과 형편은 어렵지만 이곳이 예배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권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가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는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나가는 신앙에 감탄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광림교회 교인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박중섭 목사(6선교구)

청년부

해외단기선교, 태국·몽골·네팔 지역

9월~10월 해외선교를 위한 후원모집

신앙 간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감사하게도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족하게나마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고 있던 저의 신앙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린 것은 20살 때의 일입니다.

처음으로 접한 세상의 즐거움에 빠진 저는 예배에 점차 소홀해졌습니다. 찬양이 끝나 설교가 시작될 무렵에야 예배당에 들어섰고, 그나마도 다른 생각을 하며 설교를 흘려 듣다가 축도가 끝나면 속회를 핑개치고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나게 놀면서도 텅 빈 것처럼 공허한 마음의 구멍이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허망한 느낌이 싫어서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더 많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낭떠러지로 돌진하고 있던 저를 주님께서 2014년 가평 교육선교를 통해 강하게 붙들어 돌이키셨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작은 손을 들어올리며 “나는 예배자입니다.”하고 고백할 때, 저는 제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전하러 온 선교지에서 하나님은 이미 아이들을 만나고 계셨고, ‘예배자 채정민’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모른 척했던 제 삶이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해서 통곡과 회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 저를 아이들이 끌어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저를 속장으로 세우셨고, 8년이 지난 지금은 지구장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주님과 함께할 때 오는 짝 한 행복보다 클 수 없음을 압니다. 그간 저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와 깨우침이 있었는지, 주님께서 한도 끝도 없이 부어 주시는 사랑의 놀라운 지경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다 이야기하자면 지면이 한참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도 이어지는 삶의 이 모든 순간, 주님께서 저를 넘치도록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삶을 통해 체험하게 하시고 온전한 기쁨을 선물하십니다. 이제 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꿈꿉니다. 이 벽차고 행복한 꿈을 우리 모두가 함께 꾸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선교국 해외선교 후원모집



광림교회 청년부는 이번 9월과 10월 해외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해외선교팀은 태국, 몽골, 네팔 3개의 지역을 위한 단기선교팀을 모집하였습니다.

태국은 9월 7일(수)~13일(화) 동안 포프라 지역 루업타이 교회, 몽골은 9월 8일(목)~13일(화) 동안 광림 어빙게렐 미션센터와 어르비트 미션센터에서 선교 사역을 진행합니다. 네팔의 경우 10월 중순에 해외100교회 건축 60번째(꺼이랄리 지역, 거이리단티 감리교회), 61번째(고르카 지역, 영생 감리교회) 교회의 봉헌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어린이 성경학교를 중심으로 한 다음세대 사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몽골은 청년들의 예배 회복을 위한 집회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선교팀은 코로나로 인해 2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해외선교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왔고,

코로나 완화와 선교사님들의 요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영은 태국 선교팀장은 “해외선교팀 팀원으로 태국 기도 제목을 받던 것이 계기가 되어 태국선교팀원 모집도 담당하고 이렇게 선교의 자리까지 참여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진우 몽골 선교팀장은 “몽골 청년들과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예배함의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는 선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박나영 네팔 선교팀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청년의 때에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함으로써 더욱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태국 기도제목

- 루업타이 교회가 있는 포프라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되길
- 팀원들 모두 예수님 닮아 서로 사랑하고 은혜 나누는 선교가 되길

몽골 기도제목

- 몽골선교팀이 주 안에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 몽골 청년들과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의 불길이 살아나길

네팔 기도제목

- 이번 선교 때 60, 61번째 교회(거이리단티 감리교회, 영생 감리교회) 봉헌 예배를 위해
- 네팔 팀원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기를

청년부 해외 100교회 건축

‘세계가 우리의 교구입니다’

네팔 60, 61번째 교회 / 미얀마 62번째 교회 봉헌준비



60번째 네팔 거이리단티 감리교회 완공



61번째 네팔 영생감리교회 건축 중



62번째 미얀마 야웅뽕따교회 건축 중



62번째 미얀마 야웅뽕따교회 내부

상반기 동안 예배와 속회를 통해 본질을 지켜왔던 청년부는 하반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선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많은 해외 선교자들이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마주하여 약 100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마다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청년들이 준비한 말씀과 찬양, 공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린이 성경학교를 진행하며 예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한 존 웨슬리의 말처럼 광림의 해외선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해외 각국에

선교센터를 건립하는 것과 ‘해외 100교회 봉헌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어 많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2년 가을에는 ‘해외 100교회 건축 프로젝트’의 제60, 61번째 교회인 네팔 거이리단티 감리교회(Khairithanti Methodist Church), 영생감리교회(Eternal life Methodist Church)의 봉헌예배가 예정되어 있으며, ‘해외 100교회 건축 프로젝트’의 62번째 교회인 미얀마 야웅뽕따 교회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7가정 20여명의 성도들이 있으며, 일년 헌금 총액이 1백만원 정도의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 교회 건축할 땅을 구입하고 건축을 위해 기도하던 중 광림교회 청년들이 세계 100개 교회 건축 운동에 올해 미얀마 민동선교지방 야웅뽕따교회 건축을 위해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가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LFC 광림 청년부를 통해 각 나라의 교회들의 예배의 회복과 교회학교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광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를 기도해주시고 또 해외선교를 위해 힘쓰는 청년들을 위해 중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는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504-092750
기독교대한감리회 광림교회

☎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62번째 미얀마 야웅뽕따교회 성도들



☎ 채정민 속장(청년부)

목회현장

다름이 닮음이 되다



유용찬 목사(청장년부)

교회는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재는 다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어울리는 것도 힘든데, 이해하고 수용하는 건 더욱 힘듭니다.

저희 청장년부에 출석하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매번 슬라이퍼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오는 그 형제는 특별히 하는 것 없이 맨 뒤에서 앉아만 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에 짧은 머리를 한 그를 보면 가끔 왠지 모를 두려운 기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누운 듯, 앉은 듯한 이상한 자세로 있다가 가끔 일어나 중간에 사라집니다. 집에 가나 싶는데 잠시 뒤 다시 돌아와 앉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담배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그의 무표정이 무섭다는 분도 계셨고, 흡연에 대해 질책해야 한다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들은 보기와 다르게 형제가 매우 따뜻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전혀 교회와 상관없을 것 같은 외모임에도 그는 매주 교회를 출석합니다. 눈 감고 있으면서도 말씀은 다 듣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기하게도 형제의 '네, 아니요' 단답형의 대화가 자기 표현과 함께 속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게다가 이젠 "금연이 자신의 기도 제목"이라며 달라지고 싶은 마음도 표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어려워했던 사람들도 달라지는 그를 보며 하나님에 감사하며 신기해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다름을 인정하고 닮음을 서로 발견해 갑니다.

청장년부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1박 2일로 "아름다운 청장년 캠프"(이하 아청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에는 본당 청장년부를 비롯해 35세 이상의 미혼, 지교회의 청장년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합니다. 다양함은 모양과 빛깔이 다르고 많다는 뜻입니다. 다르면 다름과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것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아름답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다양하지만 아름다운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하나로 묶일 수 있다면, 한국 교회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커다란 큰 증가가 될 것입니다. 청장년부의 아청캠프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림남교회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결단한 교회학교, 청년부



광림남교회 교육국은 신명기 6장 4-9절의 본문을 가지고 "쉐마! 다시 기억하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총 4번의 기간을 통해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다음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먼저 유아부, 유치부는 7월 24일(토)~25일까지 광림남교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마음 꾸미기) 및 십자가 꾸미기, 복음팔찌 만들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야외 워터파크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활동들을 통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의 귀엽고, 밝은 미소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유년부와 초등부는 7월 29일(금)~31일(주일)까지 광림비전랜드에서 2박 3일 동안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시 비전랜드에서 진행되는 성경학교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기대가 컸던 여름성경학교였습니다. 말씀 집회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분반 시간과 물놀이, 각 센터학습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결단하였던, 유년부와 초등부의 여름성경학교의 현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중등부, 고등부는 7월 22일(금)~24일(주일)까지 광림비전랜드에서 2박 3일 동안 여름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사로는 '페이지 처지의 저자인 신재웅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집회를 통해 먼저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회 외에 아이스브레이킹, 말씀 센터학습, 야외 물놀이 활동을 통해서 중고등부 공동체 서로서로 친

해지는 시간으로도 이어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광림남교회의 중등부, 고등부의 수련회의 현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는 8월 19일(금)~ 20일(토)까지 광림비전랜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심과 같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서는 찬양과 말씀, 기도회의 진행을 시작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시간(센터학습), 가정을 사랑할 시간(특강-헵시바)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개인과 공동체, 가정으로까지 세우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림남교회 교육국이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다시 부흥하는 은혜의 도약점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한준구 전도사(광림남교회)



남선교회총연합회

2022 광림 남선교회 하계수련회



선교의 섬 울릉도 동산교회에서 기도회 <2022 광림 남선교회 하계수련회>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라는 주제로 8월 1일~3일까지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 주관으로 울릉도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남선교회 하계수련회는 남선교회 임원과 가족 26명이 참가해 다시 재개되었다. 울릉도 소개 감리교회인 동산교회(담임 이성종 목사)에서 3번의 집회와 함께 울릉도와 독도를 탐방하고 남선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울릉도는 1909년 감리교인이었던 故 김병두 전도사가 처음 선교를 시작하여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섬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2005년 기준

31.7%) 그러기에 감리교인 뿐 아니라 신앙인들에게는 선교의 섬으로 불릴 만하다. 남선교회 임원들은 신앙 선배의 초기 선교 열정과 헌신을 본받고 싶어 수련회 전부터 강사 목사님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호렙산기도회와 매주 회회마다 울릉도의 복음화와 특히 다음세대 사역에 힘쓰고 있는 동산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 되는 은혜의 수련회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왔다.

수련회 기간 동안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사 6:1~10) '어디든지 예수나를 이끌면'(사 41:10) '마음을 지키라(잠 4:23)라는 말씀으로 집회를 열어 울릉도 선교의 현재와 미래를 나누며 광림의 남선교회 회원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선교를 펼쳐갈지 도전을 받게 되었고,

광림교회 선교의 주역이 되고자 결단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처음 수련회를 기획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만나보니 익숙한 얼굴의 강사 이성종 목사님은 99년도에 광림교회 중등부에서 신학생으로 헌신했던 경험이 있었다며, 당시 중등부 총무였던 박기연 장로님을 비롯하여 반가운 얼굴들을 수련회를 통해 만나게 되니 더욱 감사하고, 광림교회에서 김선도 감독님과 김정석 담임목사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이 목회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다.

박기연 장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수련회가 은혜롭게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젊은 스테반 임원들이 함께하여 세대 간의 조화를 이루니 더 감사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반기 행사도 잘 준비하여 모이기 위해 힘쓰고 선교하는 남선교회가 되자"라며 남선교회의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내년도 하계수련회는 더 많은 남선교회의 일꾼들이 동참하여 큰 은혜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 본다.

안병태 집사(남선교회총연합회 문화체육본부장)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감람동산

추석 합동추모예배 취소, 개별 방문 추모 가능



온가족이 함께 모이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먼저 떠난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워진다. 유족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천국소망을 바라보

는 감람동산 합동추모예배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믿음의 공동체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추모를 원하는 성도들은 개별적으로 감람동산에 방문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다.

광림교회는 '모태에서 천국 소망까지' 성도들의 전 생애에 걸친 영적 돌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경조위원회(위원장 송병제 장로)는 성도들의 기쁜 일과 슬픈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사랑을 나누고 장례의 전 과정을 주관하며 거룩하고 은혜로운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정성껏 돕고 있다.

감람동산은 2007년에 봉헌된 자연친화적 기독교 장례문화시설로 지난 15년 동안 많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영혼의 마지막 안식처이며 거룩한 성지로의 역할을 감당해왔다. 아름다운 조각물과 다양한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다. 강촌광림교회 1층 베다니홀에는 고인을 추모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실과 유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디지털 명패기에서 고인을 확인하고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을 보며 추억의 시간을 갖고 추모의 글도 남길 수 있다.

추모공간 베다니홀 이용시 주의사항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들과 감람동산을 방문할 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추모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인을 추모할 때는 기독교 추모예절을 따르고, 헌화는 예수님 조각상 앞에서 할 수 있다.

명절 연휴에는 베다니홀 디지털 명패 사용에 대기시간이 예상되니 가족들과 일정을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 감람동산에서 베다니홀로 도보로 이동할 때는, 광림요양원 내 어르신들을 위해 가급적 조용히 이동해야 하며, 베다니홀은 실내 추모공간이므로 방역수

칙에 따라 마스크와 손소독을 꼭 해야 한다. 가족예배실(12석실, 2개)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후 전등을 끄고, 의자는 제자리에 정리해 주면 된다.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므로 식음료 등을 먹을 수 없고 차량의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한 가정은 펫티켓을 지켜야 한다. 질서를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광림의 성도들과 가족의 노력으로 감람동산은 더욱 아름답고 은혜로운 안식처가 되어 가고 있다.

소현수 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람동산: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771~79 (안보리 863번지) • 베다니홀 운영시간: 9시~17시 (월요일 휴관, 명절은 이용 가능) • 문의: 조항장 권사 010-5218-4453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광림교회의 다양한 부서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의 자리를 섬기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생명적 신앙으로 풍성히 채워지게 된다.

박희운 기자



사랑부

사랑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교사와 찬양팀(싱어, 드럼)을 모집하고 있다. 사랑부는 매주 오전 9시와 11시에 웨슬리관에서 예배를 드린다. 특별히 사랑부는 학생 1명당 최소 1명 이상의 교사를 필요로 하여 많은 성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부서이다.

사랑부위원장 우형진 장로는 "사랑부에 오면 학생보다 선생님들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교사들이 잘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니 사랑부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학생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시길 간구합니다"고 했다.

문의: 김현진 전도사 010-6353-0684

상담선교위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및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상담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법률, 노무, 세무, 회계, 금융 등 광림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전문적인 지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성도라면 상담선교위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상담선교위원회 이재은 장로는 "현직에 있으면서 교회의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신앙적 열정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세상의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 주는 상담위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귀히 나눌 수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고 권면했다.

문의: 정조남 권사 010-8775-2662

방송문화선교회

광림교회 예배 및 행사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인터넷, 유튜브와 지상과 방송에 송출하는 방송문화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방송용 카메라 촬영, 음향, 미디어콘텐츠 제작, 자막 처리, 아나운서와 작가 등의 자원봉사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평소 방송미디어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은 성도라면 광림교회 방송국에서 봉사하며 소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방송문화선교회 위원장 오해일 장로는 "나와 관계없이 방송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광림방송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고 했다.

문의: 유상균 PD 010-3387-0731

성극위원회

연극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청년 성도들의 모임으로 광림교회만의 문화 콘텐츠, 극본, 음악을 가지고 극을 올려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와 같은 비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년 4월에는 광림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뮤지컬을 공연할 예정이다. 현재 배우, 무대예술, 음향, 조명, 의상, 분장 및 스텝을 모집하고 있으며, 오디션은 11월에 열린다. 성극위원회 박영준 장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연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받은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의 울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문의: 김상일 집사 010-2784-3775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15

온갖 병자들을 치유하는 예수 마 8:3

예수가 산에서 내려오자 여전히 많은 무리가 뒤따랐다. 그때 한 나병환자가 예수 앞으로 달려가 길을 막았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말했다.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소시오.”

비록 그는 나병(癩病, 문둥병/한센병) 환자였지만,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지니고 있었다. 예수는 나병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바로 그 순간, 나병환자의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는 이어서 말하였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도록 하시오.” 당시 나병의 진단도, 완치도 제사장이 판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나병을 낳은 환자는 이 일을 많이 전파하니, 예수는 마을로 들어서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있었으나 많은 사람이 예수에게 몰려들었다.

많은 사람 중 이방인도 있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百夫長, 로마 장교/100명의 로마 병사로 구성된 부대의 책임자)이 다가와 자신의 집의 하인이 중풍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데 이를 치유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예수는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겸손을 발견하고는 말하였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자 백부장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다시 간구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이런 요청에 예수 그리스도도 그를 크게 칭찬하였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집으로 돌아가 보니 중풍에 걸려 고생하던 하인이 강건해져 있었다.

나인 성은 갈릴리 지방에 속한 작은 마을이다. 어느 날 예수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나인성이라는 조그만 마을로 지나갈 때 장례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생명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과 죽음의 장례 행렬이 마주쳤다. 평평 통곡하는 과부를 예수는 불쌍히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도 슬피 우는 과부에게 말했다. “울지 말아라.” 말을 마친 예수 그리스도도 관으로 다가가 손을 대고 입을 열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서 말을 하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이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는 놀랐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한, 예수께서 심각한 열병으로 고통스러워하던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일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었다. 아픈 장모를 두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닌 것으로 보아 그의 장모는 열병 외에도 갖은 병치레를 했고, 사위 집에 얹혀살기도 오래되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장모가 아픈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침 주위 사람들이 예수에게 베드로 장모의 병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에 예수는 베드로 장모에게로 다가가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더니 열병에 언제 걸렸다는 듯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손님들에게 저녁상을 차려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자 그 소문은 재빨리 퍼졌다. 이후 해질 때까지 각종

◀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는 여인_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간절히 붙잡는 장면이다. 여인의 믿음에 즉시 병이 나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 해럴드 코핑의 작품

▲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백부장_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이다. 파올로 베르네제의 작품.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찾아왔다. 이들은 모두 예수의 확신에 찬 말 한마디면 회복될 수 있었다.

그리고 군중 속에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고생만 하고 가산마저 탕진했는데도 아무 효험도 없이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 속에 끼여 따라가다가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녀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 믿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도 곧 자기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서서 군중을 둘러보며 물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는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안심하여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예수께서 말을 마치자 그 여자는 과연 출혈이 그치고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



광림뉴스레터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구약성경>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